

제 33 집

예 신 문 화



예 신 문 화 원

제 33 집

차 례

예 산 문 화



표지사진은 추사고택

추사 김정희선생의 증조부이신 월성위 김한신께서 건립했으며 추사 김정희선생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저택이다.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3호)

※ 대문을 들어서면 맨앞 'ㄱ'자모양이 사랑채, 그뒤 'ㄴ'자모양이 안채, 맨뒤 'ㅡ'자모양이 영당(影堂)임.

2001辛巳年 前半號

발행인 : 이 지 호

편 집 : 김 문 희

발행처 : 예 산 문 화 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3

전 화 (041)335-2441

333-2441

FAX (041)334-4330

인 쇄 : 충 남 인 쇄 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4-11

전 화 (041)333-2607

발행일 : 2001년 1월 3일

비 매 품

○ 발 간 사 / 李祉浩 院長 / 2

△ 신년사 / 權五昌 禮山郡守 / 3

◇ 2000년 예산문화원 시행사업 실적개요 / 5

◎ 예산문화원 문화축제 화보 / 6

○ 추사문화제

○ 임존성백제부흥군축제

◇ 예산문화원이 청소년과 함께했던 2000년 / 11

▣ 예산군 청소년상담실 안내 / 황보경희선생 / 13

▣ 회원순례기 / 채만석 / 15

▣ 조선시대품계(왕실, 관직 및 종친) / 24

☆ 고종임금의 生父 남연군에 대한 일고 / 26

♣ 예산문화유적총람 CD-ROM 소개 / 33

○ 추사문화제

○ 임존성백제부흥군 축제

◎ 예산에 대한 토막지식 / 35

◎ 문화단신 / 36

○ 제11회 추사선생추모 전국회화대회 수상작품전

○ 제3회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회원전

○ 문화가족 유적지 순례

발 간 사



예산문화원장 이 지 호

새 세기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문화원 활동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 고자하는 의지가 정책적으로 확고해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21세기에는 대 부분의 사회기능이 전산화되어 모름지기 많은 인력이 유희인력으로 물러서게 되면서 그들중 많은 수가 나름대로의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의 우리문화는 대중문화에 빈약했고 다수에게 접근함이 곤란했던 점에 착안하여 이제 새 로운 문화도약을 기약하면서 새 세기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근래에 문화정책이라는 테두리에서 국가가 문화에 개입했으나 문화의 시장성부족 은 문화활동의 궁색과 꺾박을 면치못해 왔던점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볼 때 고대 그리스에서 문화를 농사짓거나 교육을 하는것(Colero)으로 표현한 이래 16세기에 들어서서 문화는 자연적인 상태가 아닌것 즉 인위적인것으로 정의했으며 18세기 후반에 독일의 철학자 J.G.Herer는 "한 민족의 삶은 모습니다"라고 언급 했고 19세기에 들어 독일에서는 문화의 대상으로 민속을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중속에서 방관되던 문화가 20세기말에 들어서면서 그 경제적 가능성때문 에 나라마다 정치권력에 의해 부각되었습니다. '문화의 세기가 온다' '문화는 국가경 쟁력이다' 라는 모토는 문화의 산업적 가치와 문화시장의 잠재력의 매혹에서 연유합 니다. 문화는 역사성, 지역성, 계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작물재배, 의식 주행사, 여가활동 등을 통해서 대중의 복고적 욕구 충족을 추구해서 축제화해야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인식되었습니다.

예산문화는 역사성에서 애국충절과 효도, 우애와 관점을 두고 지역성에서 내포문 화의 흐름을 계승하고 계층성에서 일반대중문화를 창출해서 순수한 대중민속축제로 서의 지역축제 발굴을 통하여 문화를 관광사업화하면서 시장성과 부가가치를 추구해 야 하겠습니다.

때마침 예산문화원은 문화의 세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 금년에 새 원사를 마 련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이 원사를 중심으로 지역문화활동사업을 활발히 전개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문화를 개발해가야 하겠습니다. 새 세기 첫해를 맞이하면 서 예산문화원 회원, 단체회원, 문화회원이 합심일체가 되어 그동안 거둔 문화활동성 과를 더욱 활발히 향상 발전시켜 나아갈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2001년 元旦

新 年 辭



존경하는 11만 군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할 신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항상 밝은 웃음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과감한 자기혁신과 근본적인 의식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군민 대화합과 창조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예산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저는 화합과 안정속에 21세기 예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 나갈 군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군정목표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전반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여의치 못한 재정여건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드리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민원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군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우리군이 도내 시군 행정실적평가에서 총26개 분야중 16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우리군에서 군정의 제1역점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온 효 실천운동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뜨거운 성원속에 알찬 결실을 맺는 등 화합과 안정속에 혁신적인 지방행정의 구조조정과 21세기를 향한 민선 2기 군정의 새로운 기조를 정립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여주신 덕택으로,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가득찬 21세기 예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해 새로 정립한 군정기조를 바탕으로 군정방향을

첫째, 인본경영행정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군정구현.
 둘째, 한차원 높은 복지와 환경보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셋째, 지방차원의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안정도모.
 넷째,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육성으로 농촌의 활성화 촉진.
 다섯째,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지역개발 기반구축과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관광산업육성과 문화예술진흥에 역점을 두고 보다 활력있고
 역동적인 자치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예산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탄탄하게 다져온 성숙한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예산군이 힘찬 전진과 도약을 거듭하며 훈훈한 인정과 도덕적 향기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하고 모든 재목이 견고해야 합니다. 약한 벽돌과 건축자재로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의 양어깨 위에는 군민대화합과 예산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서 여야나 지역간 계층간의 구분없이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21세기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1만 군민 여러분께서는 내가 바로 내 고장의 주인이라는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때 꿈과 희망이 가득한 21세기 예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이 땅에 살다가신 선조들께서 피땀흘려 쌓으신 은덕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선조님들 못지않은 은덕을 쌓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하여주신 군민 여러분의 기대와 여망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7백여 산하 공무원과 함께 우리고장 예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신명을 다바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2001년 1월 1일

예산군수 권오창

2000년 예산문화원 시행사업 실적개요

一. 문화활동사업

1. 문화교육지원

- ① 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
- ② 문화학교회원 작품전시회
- ③ 문화유적지 순례

2. 향토문화계승

- ① 한고을한문화운동 민속행사
- ② 제9회 임존성백제부흥군 축제

3. 향토문화보존

- ① 예산문화 32, 33집 간행

4. 청소년 문화사업

- ① 제6회 미술실기대회
- ② 제5회 풍물겨루기대회
- ③ 제2회 서예대회
- ④ 제2회 글짓기대회

二. 조사및 발굴사업

1. 향토사료수집

- ① 향토사료 물품수집

2. 향토민속발굴 및 축제개선

- ① 예산군민 대보름 축제
- ② 예산문화유적총람 제작

三. 문화행사사업

1. 보조·지원금 행사

- ① 제11회 추사선생추모 전국회화대회
- ② 수상작품전시회(예산, 서울)

2. 자체행사

- ① 경진년 신년교례회
- ② 기타문화행사

四. 특별사업

1. 청소년어울마당

- ① 풍물패아사달 공연(고덕중)
- ② 산업과학대학 합동성년식
- ③ 한여름밤의 영상음악회
- ④ 충남씨어터 '밧줄' 연극공연
- ⑤ 제1회 학생문화축제
- ⑥ 풍물패아사달 공연(신암중)
- ⑦ EXIT 공연

2. 청소년상담실 운영

- ① 기 간 : 연 175일
- ② 인 원 : 연 3340명
- ③ 장 소 : 연 21개소

예산문화원 문화축제 화보

1. 제4회 추사문화제

공식행사



◀ 추사김정희선생 추모제

10월 8일 10시

추사묘소에서

산신제→묘제→군수대회사

→국회의원축사로 거행

제11회 추사김정희선생추모 전국회호대회 ▶

10월8일 11시~오후5시30분

추사고택 특설과장에서

기념사업회장개회사→심사규정발표

→회호→심사→시상으로 진행



부대행사

- 제7회 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
- 추사서화 영인작품 전시판매

제7회 열린분우회 분재전시회▶

10월 7일 11시부터
예산문화원 앞뜰에서
예산문화원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분재법회
예산열린분우회 주관으로
3일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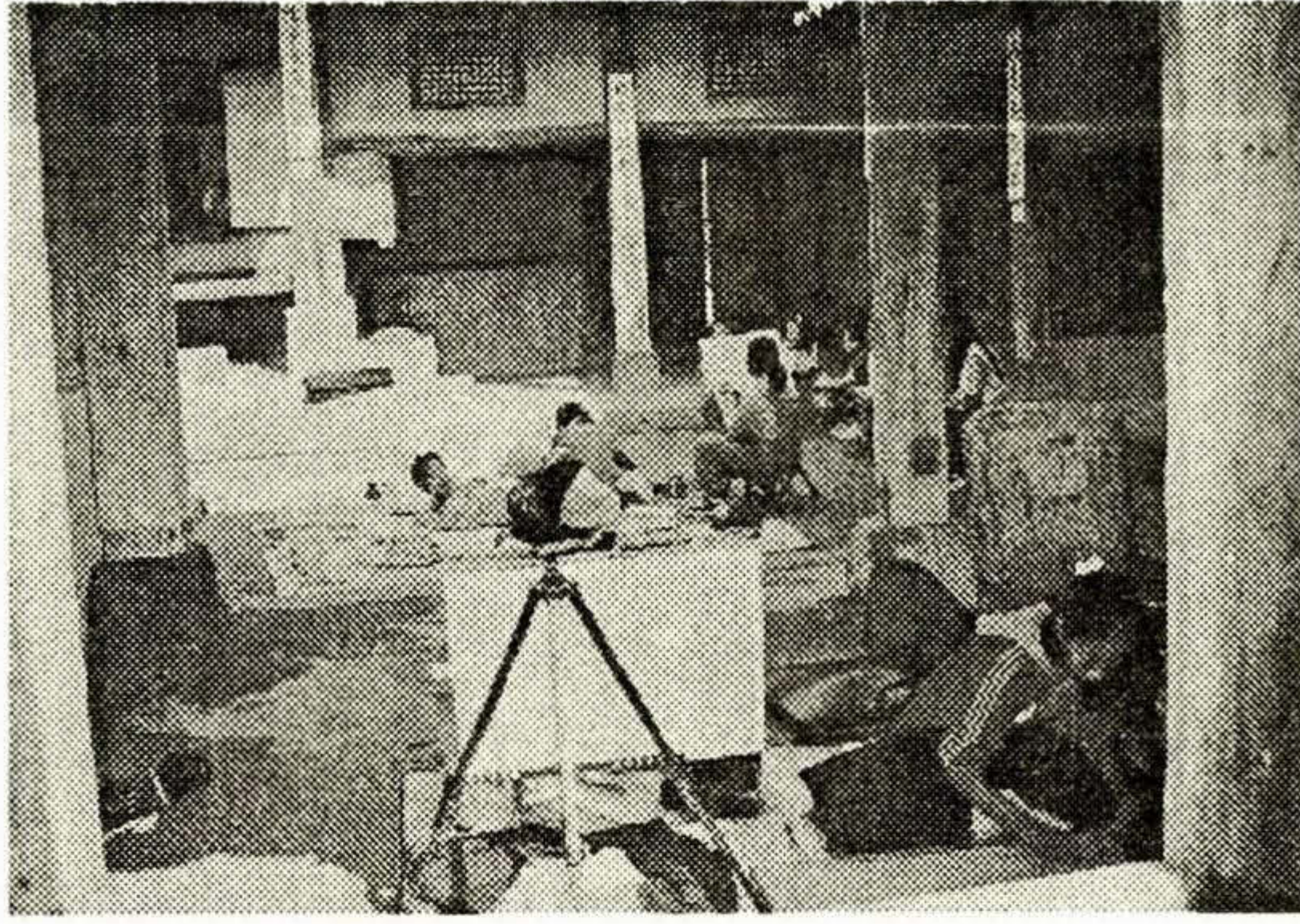


◀ 추사서화영인작품전시회

10월 8일 11시~오후 5시
추사고택 대문앞에서
예산문화원
전통공예동호인회
주관으로 개최

대 회

- 제6회 어린이미술실기대회
- 제5회 학생품물겨루기
- 제2회 학생서예대전
- 제2회 학생글짓기대회



◀ 제6회 어린이미술실기대회

10월 8일 10시~오후 2시

추사고택 대회장

미협 예산군지부 주관으로 개최

제5회 학생풍물겨루기대회 ▶

10월 7일(토) 오후2시~6시

예산군학생체육관(예산중학교내)

에서 예산문화원회원단체

풍물패아사달 주관으로 개최



제2회 학생서예대전

10월 8일 10시~오후2시

추사고택 대회장에서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야간서예반 주관으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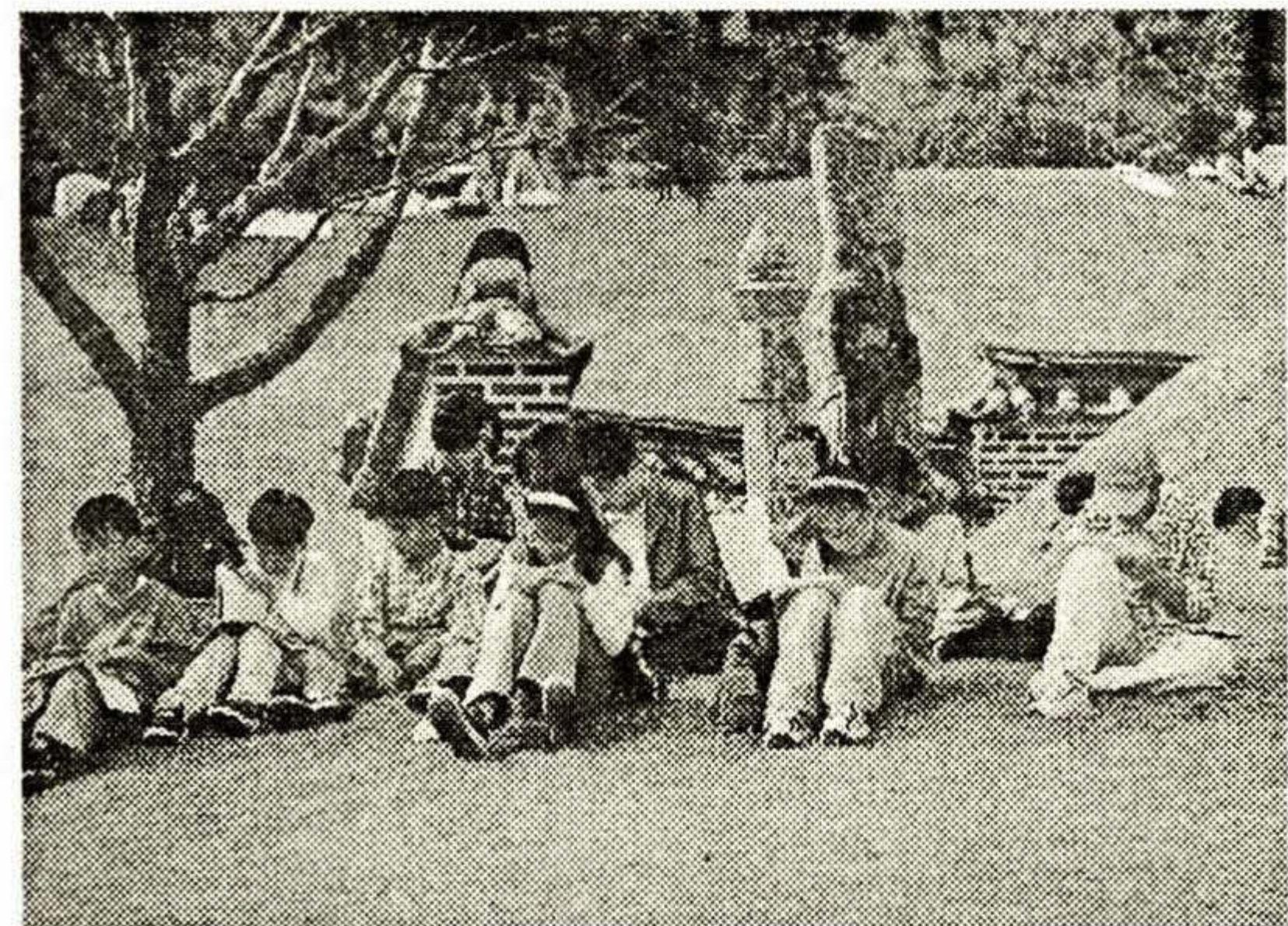
제2회 학생글짓기대회 ▶

10월 8일 오후1시~5시

추사김정희선생유적지

화순옹주홍문, 화순옹주묘앞에서

무의문학회 주관으로 개최



2. 제9회 임존성백제부흥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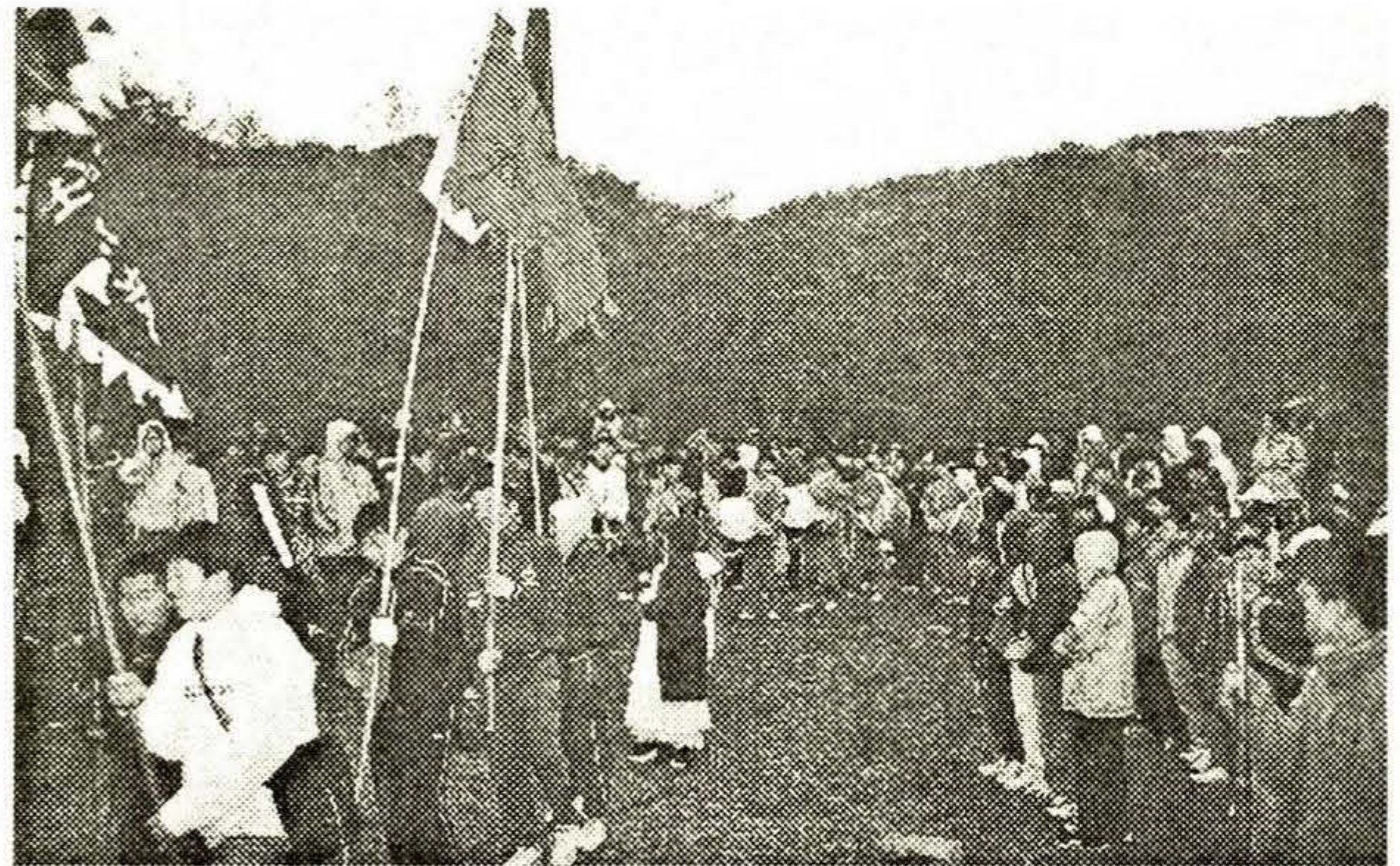


◀ 천도제 거행

- 우물터에서
- 이애주 교수
- 이광수풍물단

깃발단이동 터벌림길놀이 풍물 ▶

- 우물터→성곽→장군바위로 이동
- 이광수풍물단
- 학생깃발단
 - 광시중 • 예산중
 - 대흥중 • 예산여중



◀ 진혼무

- 장군바위아래 제단에서
- 이애주 교수
- 이광수풍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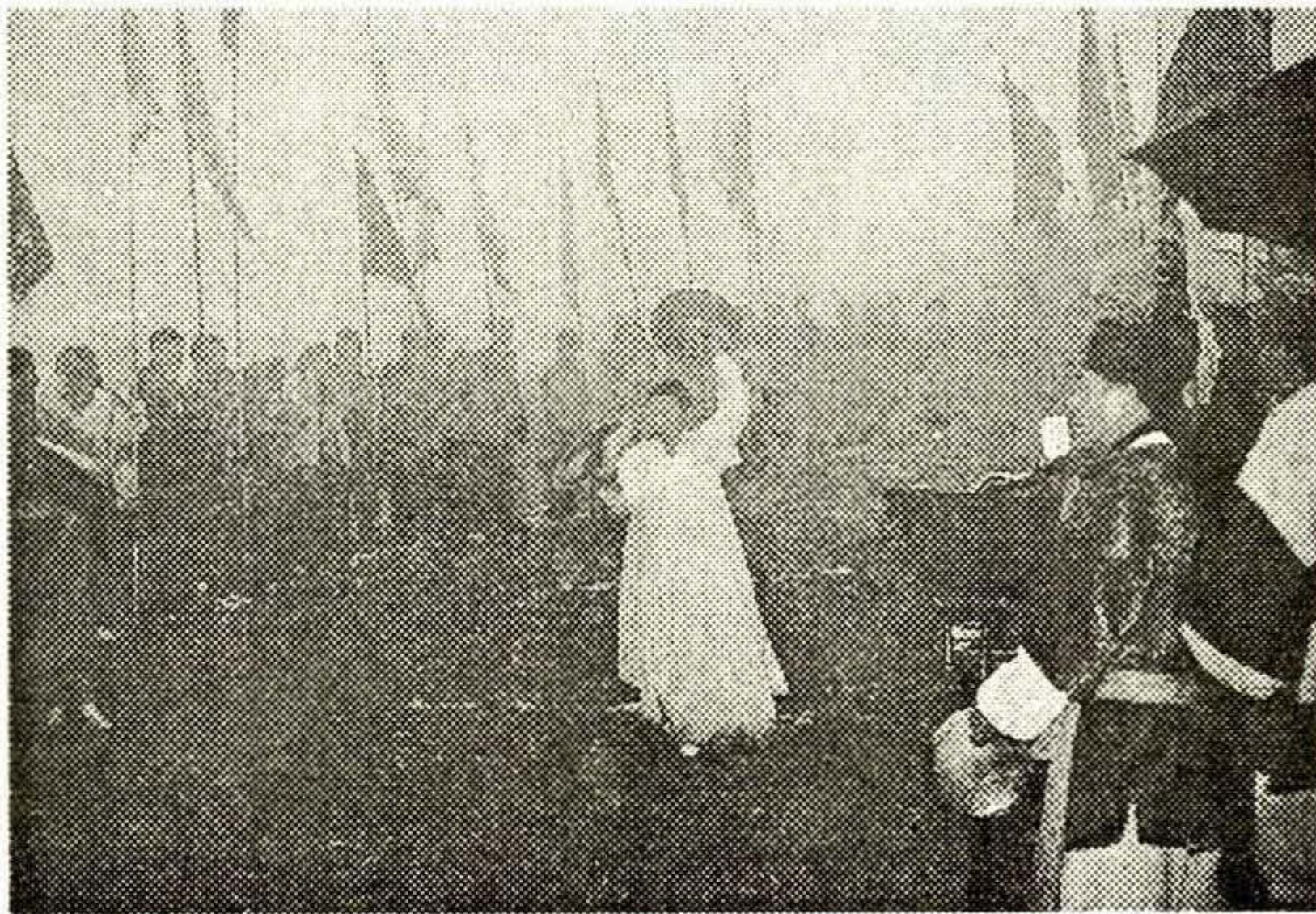


◀ 비나리기원

- 위령제 제단으로 이동하면서
- 이광수풍물단

사물놀이 ▶

- 이광수 풍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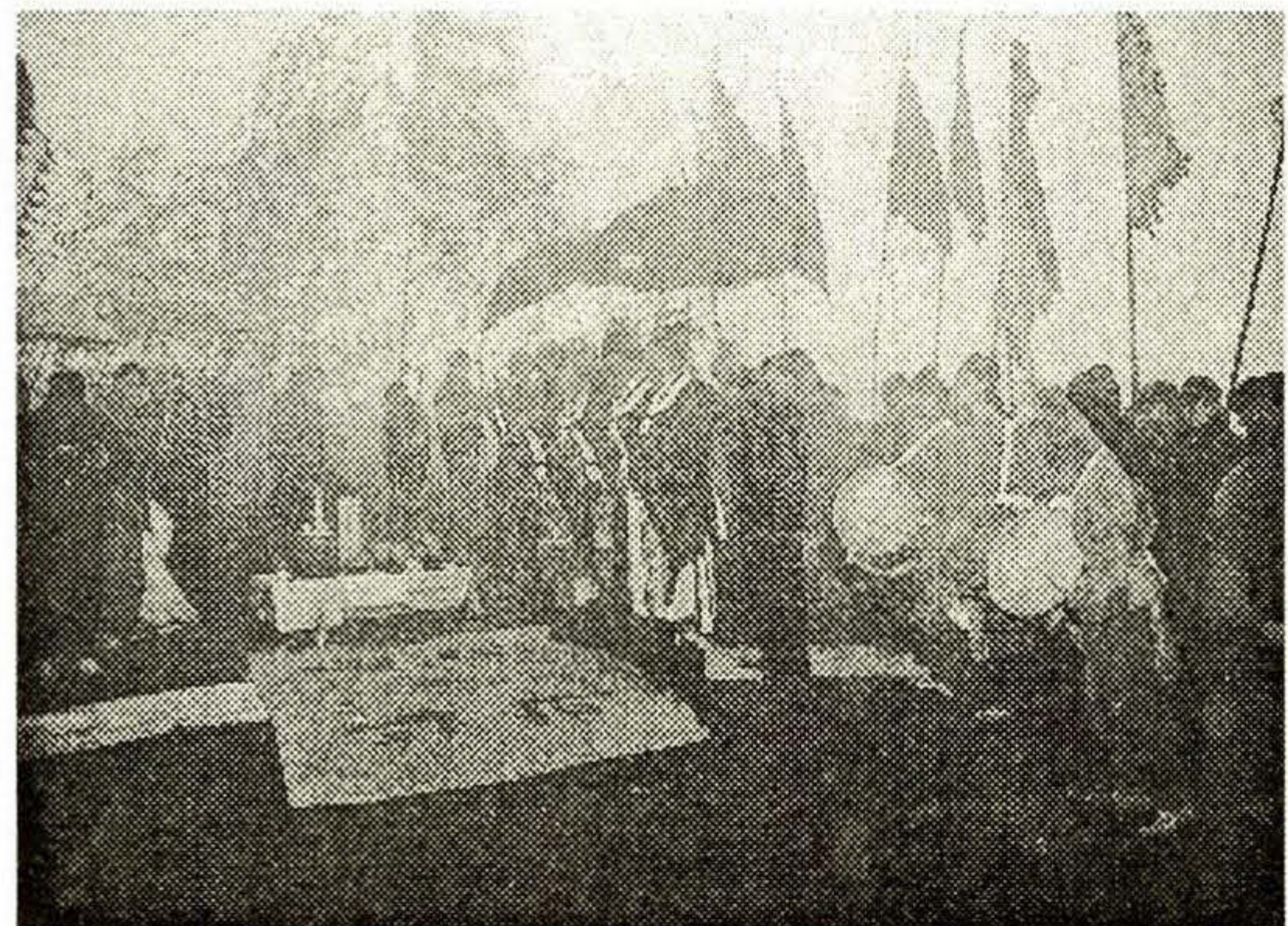


◀ 송 신

- 이해주 교수
- 이광수풍물단과 참여자

위령제 거행 ▶

- 장군바위 제단에서
- 초헌관 - 예산군수



“예산문화원이 청소년과 함께했던 2000년”

「예산군청소년 어울마당」



고덕중학교에서 아사달공연

◀ 아사달과 함께하는 풍물교실

4월 28일
고덕중학교에서
풍물패아사달이 시범보이는
풍물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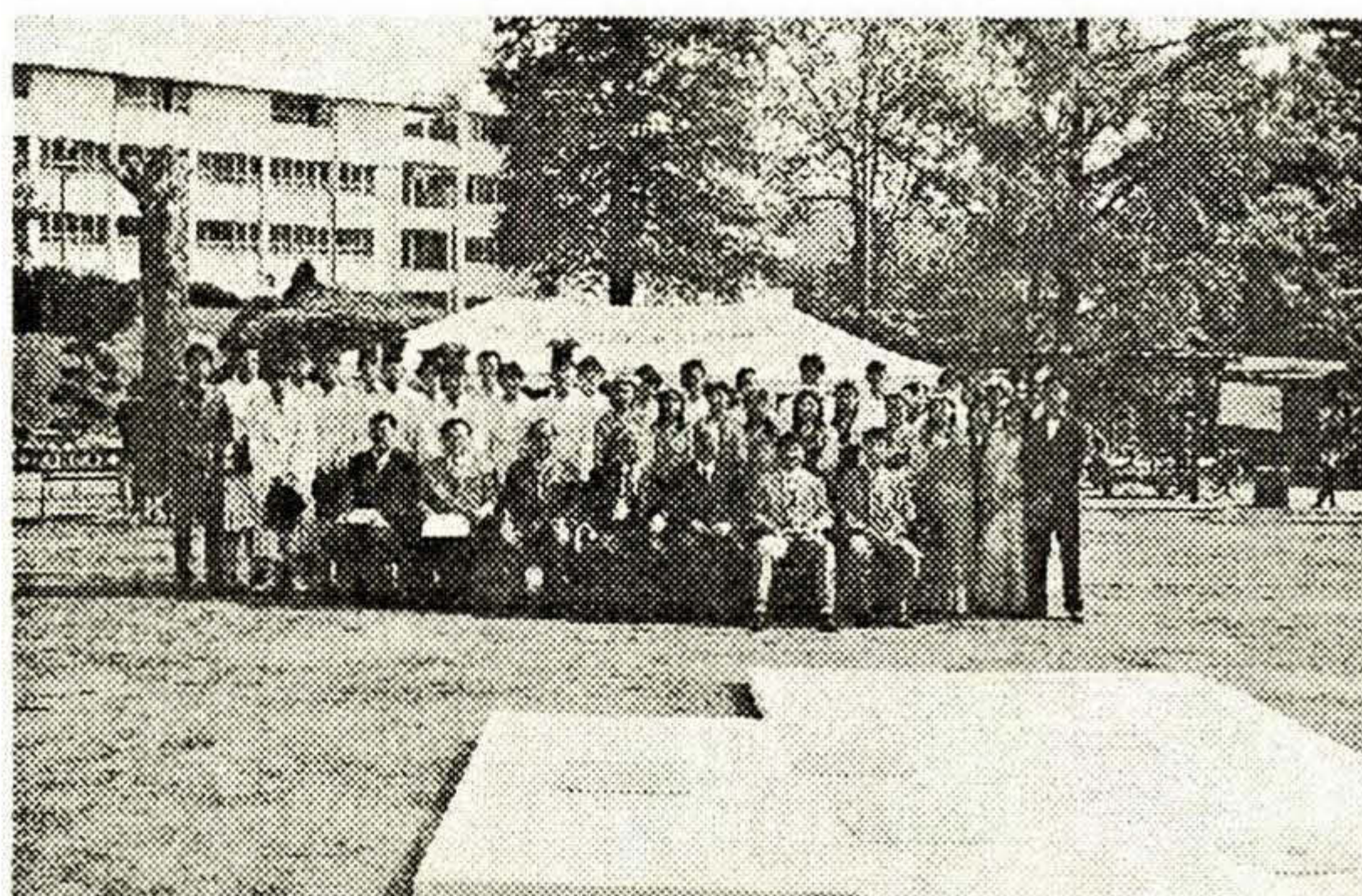
성년 의식 ▶



5월 15일
산업과학대학에서
합동관계례 개최



합동관계례 거행



예식후 참여자 기념촬영



해미읍성 설명을 듣는 순례단

◀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8월 15일(광복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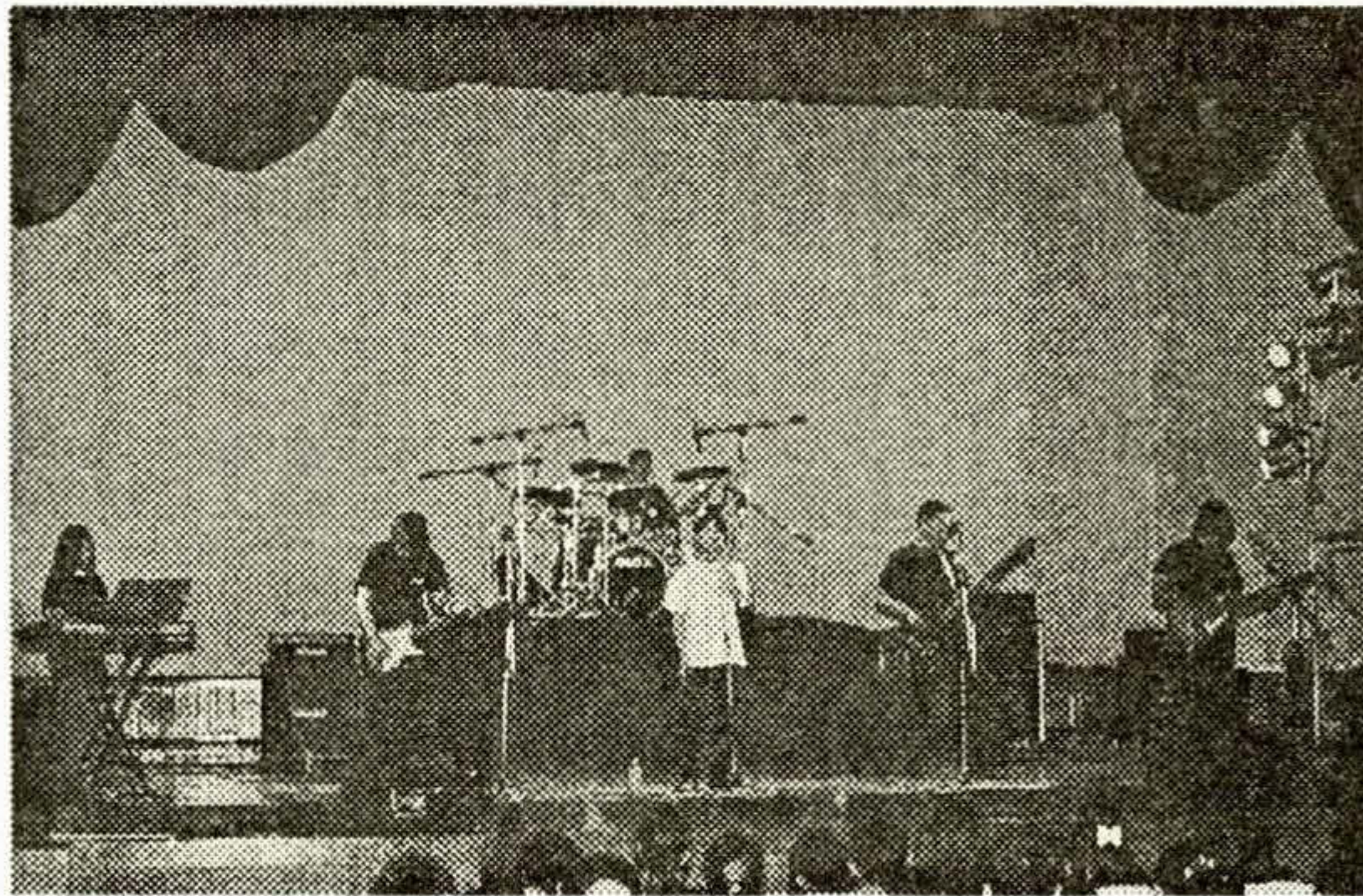
예산문화원→해미읍성→개심사
→보원사터→서산마애석불 삼존불상
→남연군묘→추사고택→예산문화원

청소년문화축제 ▶

10월 28일 오후 2~7시
산업과학대학운동장에서
상설마당→여는마당→
본마당→대동놀이로 거행



청소년문화축제 대동놀이



◀ EXIT공연 ▼

12월 21일
오후 7시~8시30분
예산문예회관에서
“ROK” 공연



예산군 청소년상담실 안내 - 상담전화 335-5700 -

청소년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자 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실은...



예산군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황보경희

11월 부모교육교실 — 예산신협강당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기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불굴의 정신에 대한 깊은 믿음은 무슨 일에서든지 성공을 거두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상담실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내일을 향한 푸른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고, 작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으로서 1995년 2월 개원하여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인성계발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대전 법원으로부터 1호 처분을 받은 감호 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처음에는 뚝뚝 얼어 닫혀 있던 그들의 마음이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또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표현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는 성교육 집단상담을 통해 왜곡되어 있는 그들의 성 의식을 바로 세우고 진정 사랑이 전제된 성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고, 청소년 심리극으로 잃어 버리고 묻혀져 있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진로

및 학습습관 향상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성격, 적성에 맞는 진로와 맞는 진로와 바른 학습 습관을 가지도록, 2박 3일의 자기성장 여름 캠프를 통해 예산 지역 뿐 아니라 충남 지역 중 고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부모 자녀 관계, 그림 검사를 통한 자녀 이해, 갈등 없는 대인관계 등 학부모들이 보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자아개념검사, 진로탐색검사, 학습흥미검사, 표준화성격검사 등 여러 가지 심리 검사가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 상담관련자, 자원상담 봉사자 Workshop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담자의 질적인 향상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 그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과정이 있으며, 그 속에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상담실은 단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곳이기보다는 좀 더 나은 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찾는 곳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기에...

우리 나라의 미래는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질풍노도 속에 있는 그들을 지지해 주고 보듬어 주고 인정해 주면 더욱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올 한 해도 아니 다음 해에도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변화와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예산군 청소년상담실은 노력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살아 숨쉬며 활동하는' 상담실이 되어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청소년들의 고민, 아픔, 꿈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월 충청남도 시·군 청소년
자기성장여름캠프 기념촬영(부여)

會員巡禮記

- 향토사연구가 예산문화원회원 채만석 -

文化遺蹟地巡禮 〈其一〉

1999. 12. 5 (日)

○ 昌德宮(秘苑) : **敦化門**

○ 昌德宮 史蹟 第122號

李朝 第3代 太宗1405年 建立

規模 135,212坪

○ 進善門

○ 仁政門

○ 肅章門

• 熙政堂

• 宣平門

• 大造殿 寶物 第816號

○ 樂善齋 4,500坪

1847年 建立

○ 秘苑 1405年 建立

• 堅春門

• 芙蓉亭

• 魚水門

• 宙合樓 朝鮮 英祖52年(正祖卽位年 : 1776)

• 咲花堂 졸참나무(古木)

• 金馬門

• 不老門

• 演慶堂

• 長樂門

- 脩仁門
- 長陽門
(溝水精舍)
- 正秋門
- 佑申門
- 通碧門(부엌)
- 赤(향나무)

○ 昌德宮(昌慶苑) : **弘化門**

- 明政門
- 植物園
- 成宗胎室碑
- 昌慶宮風旌臺 寶物 第846號
- 養和堂 李朝 成宗 15年(1484年)
현판 純祖의 글씨
- 通明門 寶物 第818號
李朝 成宗15年
- 景春門 李朝 成宗14年(1483年)
純祖의 글씨
- 歡慶殿 李朝 成宗15年(1484年)
- 涵仁亭 朝鮮祖 仁祖11年(1663年)
- 崇文堂 朝鮮祖 20代 景宗(1721~1724)
- 文政殿(御前會議)
- 明政殿 國寶 第226號
李朝 9代 成宗15年(1484年)
壬辰倭亂때 消失
李朝 15代 光海君8年(1616年) 中建

李氏朝鮮의 정기가 있는 昌德 · 昌慶宮의 숨결

I. 들어가는 말

1392년 이성계가 개성에서 조선을 건국한 이래 고려의 틀에서 벗어나고 왕업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중심지인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좌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성곽을 쌓고 4대문 안에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 德壽宮은 물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宗廟를 짓고 종로 6전은 물론 계층별 주거생활도시 및 만년대계 국가왕도로서의 조건을 갖추어 나갔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역사적 가치와 건축 및 경치가 빼어난 昌德宮, 昌慶宮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李氏朝鮮 正史의 母體 昌德宮(秘苑)

昌德宮 동쪽에 자리잡은 昌德宮은 太宗이 즉위하고 나서 首都를 開城에서 漢陽으로 옮기면서 지었다.

그 후 몇 몇 전각과 누각을 새로 짓거나 고쳐지어 시대에 따른 독특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뒤에 景福宮을 고쳐 짓는데에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궁전은 景福宮과 함께 壬辰倭亂때 불타 없어지고 다시 짓기 시작하여 光海君 2年(1610)에 완공된 것이 현재의 昌德宮이다.

이 궁은 그 후에도 화재를 입는 등 재난을 맞기도 했으나 비교적 여러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특히 昌德宮의 남쪽 정문인 敦化門은 조선시대의 여러 궁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太宗 12年(1412)에 지은 것이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때에도 해를 입지 않았고 6.25때도 무사해서 寶物383號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이 敦化門은 보존상태가 위태로와 1976年 완전히 뜯어서 다시 지었는데 조선 초기의 건축 모습새와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昌德宮의 中心건물 仁政殿은 太宗4年(1404)에 별궁으로 지었으나 壬辰倭亂때 불타 없어진 것을 光海君때 다시 지었다.

仁政殿은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이 정사를 보고 거처하던 대궐로서 크고 웅장하며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정면의 좌우에는 돌을 깎아서 새긴 품계석이 세워져 있으며 정전의 안에는 단청을 곱게 입힌 용상 등이 있는데 품계석이란 벼슬아치들의 계

급을 적은 돌을 말한다.

그 후 高宗임금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을때 仁政殿은 황제가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문무백관으로 부터 인사를 받던 곳이기도 하다.

仁政殿은 그 구조 등이 모두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무로서 景福宮, 勤政殿은 이 仁政殿을 본떠 세운 것이다.

仁政殿의 동북쪽에 자리잡은 大造殿은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역대의 왕과 왕비가 거쳐하던 곳이기에 이곳에는 왕실이 각종 호화스러운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어 당시의 왕궁생활이 호화스러웠던가를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昌德宮에는 熙政堂, 樂善齊, 선원전 등의 전각과 누각이 있다. 특히 樂善齊는 현종 임금때(1846) 왕족의 후손들이 거쳐하는 궁의 별채로 지었는데 연경당과 함께 궁궐안의 건축물로는 유일하게 단청하지 않은 특징이다.

樂善齊 뒤에는 취운정 한정당 의진각등의 전각과 누각이 섬돌 나무와 함께 자유롭게 배치되어 자연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돋보일 뿐 아니라 순수한 한국식 조경이 반영된 곳으로 손꼽힌다.

이 樂善齊와 함께 朝鮮時代의 전형적인 주택양식을 보여 주는 연경당은 순조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생활해 보겠다고 사대부의 집을 본떠 99칸이나 되는 집이다.

연산군 때 만든 서충대는 무관들이 활쏘는 곳을 임금이 지켜보던 곳인데 재미나는 고사가 전한다.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 임금 때 昌德宮 뒤뜰에 한 줄기에 9가지가 뻗은 파가 자라 나서 성종 임금은 이 파가 상서로운 것이라 하여 주위에 돌을 쌓고 잘 보호하여 길렀다.

성종 임금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은 정치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날마다 놀이에만 빠져 나라를 어지럽힌 임금이다.

연산군은 이 서충대를 놀이의 장소로 고쳐 만들기 위해서 웅장하게 쌓는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 많은 백성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시키다 보니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베를 거두어 들였다.

백성들은 나중에는 베를 짤 솜이 없어 옷에 넣었던 솜까지 꺼내어 베를 만들어야 했는데 베가 검고 거칠어져 그 후부터 거칠고 품질이 나쁜 베를 서충베라고 부르게 되었다.

昌德宮 북쪽 울 안에는 우리 나라 최대의 궁궐뜰인 이 후원을 흔히 妣苑이라 부르는데 이 이름은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것이라 한다.

그래서 임금의 소품이나 산책을 위해 만들어진 이 동산은 그냥 금원 혹은 후원, 궁원이란 불러야 한다고 형이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이 동산에는 각양 각색의 정자와 누각 및 수만 그루의 수목과 화초가 여러 연못과 어울려져 가장 한국적인 정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며 전각은 꽃 속에 묻혀있어 여덟번 꽃이 피고 여덟번 꽃이 지는 곳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왕이 낚시를 즐겼던 정자인 芙蓉亭 과거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暎花堂 임금이 자주

잔치를 베풀었다는 宙舍樓 왕이 독서실이었던 서향각 등의 아름다운 전각과 누각이 크고 작은 사연을 간직한 채 수목과 화초 및 연못 사이사이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인조 임금의 몸소 옥류천이란 이름을 새긴 이 우물은 돌을 파고 물을 끌어 올려 폭포를 이루었다는 유명한 우물이다.

또한 天然記念物 194號로 지정된 700年 넘은 향나무와 100年 이상이나 묵었다는 느티나무가 수 많은 수목 사이에서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이 동안은 1976年 7月부터 2年 9個月에 걸쳐 보수공사와 단청공사를 새로하고 7萬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 산뜻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정원으로 단정하게 되었다.

이곳 昌德宮 후원에는 옛날 네 개의 좋은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얹혀 있다.

세조 임금은 물맛 좋은 우물을 궁궐에 두고 싶어 여러 사람에게 명하여 우물을 찾게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세조는 직접 두 신하와 함께 우물 터를 찾아 나섰다가 임금이 가리킨 곳을 파 보니 과연 물맛이 달고 깨끗한 샘물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주위에다 돌을 다듬어 벽돌처럼 쌓고는 제일 물맛이 좋은 우물을 마니 다음은 파려 그 다음은 유리 그 다음은 옥정이라고 불렀다.

임금은 우물에다 이런 우물 이름을 써 붙인 다음 친히 마니 우물 노래를 짓고 신하들에게도 우물 하나씩에 대한 노래 짓게 하였다 한다.

Ⅲ. 李氏朝鮮 王들의 生活공간 昌慶宮(昌慶苑)

昌慶苑의 옛 이름은 昌慶宮이다.

세종 임금은 아버지인 태종 임금을 모시기 위하여 수강궁이라는 궁궐을 지은 후 성종 임금은 세 왕후를 위하여 수강궁터에다 여러채의 건물을 더 짓고 이름을 창경궁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본래 이 궁궐에는 60여 채의 전각과 누각이 있었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이 궁의 대부분이 헐리고 중심건물인 明政殿(寶物226號)과 弘化門(寶物384號) 등 몇 개의 전각 만이 남게 된것이다.

1909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덕수궁에서 이 곳으로 옮겨와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설치하고는 이를 백성들에게 공개하여 즐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름을 창경원으로 바꾸어 부르게 하였다.

昌慶苑의 정문인 弘化門은 오래 되었으나 걸치레가 없으며 검소한 듯하면서도 그 숨씨가 유난히 재치 있고 아름다움이 빼어난 문이다.

창경궁의 중심 건물인 明政殿은 성종 14년(1483)에 세워졌다.

조선 시대의 궁전과 전각이 대부분 남향인데 이 전각만이 동향이며 고려 시대의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서 寶物 第85號로 지정되어 있다.

昌慶宮에는 또 通明殿(寶物818號)이 있는데 이 곳은 궁궐 안에서 연회나 잔치가

있을 때에 잔치를 벌였던 장소를 겸했던 곳이다.

이 밖에도 昌慶宮의 유적으로는 선인문과 涵仁亭, 崇文堂, 景春殿, 養和堂 등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해시계를 옮겨 놓고 시각을 재던 일명대는 지금 받침돌만 남아 있다. 지금은 각각 알맞는 장소로 유물이 옮겨져 있지만 시각을 알리던 보루각과 천문 관측기구 별자리를 새긴 석조물 등이 옛날에는 모두 이 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昌慶宮에는 조선시대의 다리 양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성종 14년(1483)에 놓여진 옥천교라는 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두 개의 무지개 모양의 수문이 있고 눈을 부릅뜬 귀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며 난간에는 연꽃 모양의 창을 낸 아름다운 다리이다.

그리고 長書閣은 본래 왕실의 도서를 보관하던 곳인데 지금의 건물은 1911년에 지은 것이다.

이 곳에는 우리 나라의 옛날 서적이 약 86,000여권이나 보관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으로 옮겨졌다.

昌慶苑에는 동물원뿐만 아니라 식물원과 갖가지 시설이 들어서 있어 시민의 휴식처나 소풍처로서 그 기능을 다하다가 동물원은 남서울대공원으로 옮겨왔다.

이 昌慶苑은 본래 이웃에 있는 昌德宮, 宗廟와 더불어 한 터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그 사이로 길을 뚫으면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 일본 사람들은 昌慶宮 안에다 자기 나라 꽃인 벚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그 꽃이 새 명물이 되어 해마다 4, 5월이면 벚꽃놀이로 사람들이 붐비게 되어 지나간 역사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IV. 맺는말

이씨조선 왕조를 대표할 만한 궁궐은 경복궁과 창덕궁 및 창경궁이다.

특히 창덕궁은 정치하고 상주하던 궁으로서 웅장하며 창경궁은 왕들이 생활공간으로서 운치있고 아기자기하다.

이 모두 우리의 역사이자 건축문화를 넘어 세계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자랑거리인 반면에 외세침략에 따른 치욕적인 역사적인 흔적이 서려있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웬지 편안하면서도 과거 600여년의 역사기행을 떠나보는 동시에 근대와 현대와의 대화가 있고 21세기 아니 미래 한민족의 세계문화대국으로 뻗어가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듯한 감명을 받기에 충분했다.

단순한 건축문화가 아닌 정신문화의 숨결이 담겨있는 昌德宮과 昌慶宮이야말로 조선왕조가 아닌 한민족 과거 5천년 미래 5천년을 연결해 주는 역사와 비전의 현장인 것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文化遺蹟址巡禮 〈其二〉

2000. 11. 25(土)

12:00~12:40 韓國産業디자인의 殿堂 秋史白日場書藝展示

12:41~13:00 中食

13:10~14:05 宗廟 56,503坪

○ 御肅室

○ 永寧殿

14:50~16:00 德壽宮

朝鮮時代 5大宮闕 昌德宮

昌慶宮

景福宮

德壽宮

慶熙宮

國立現代美術館德壽宮分館

(美術展示館)

19:10~20:00 故鄉食堂(禮山邑 間良里)

20:10 本宅向發

○ 宗廟：1. 正門(창엽문)

2. 수복방

3. 池塘(연못)

4. 望廟樓

5. 恭愍王神堂

6. 香大廳

7. 宗廟正殿(國寶 第227號)

8. 典祠廳

9. 永寧殿(寶物 第821號)

10. 樂工廳

11. 齊宮

○ 德壽宮：1. 大漢門

2. 中和殿(寶物 第819號)

3. 德興殿

4. 咸寧殿(寶物 第820號)

5. 준명당, 죽조당

6. 光明門, 자격루, 홍천사범중

7. 國立現代美術館 德壽宮分館

8. 정관헌

9. 宮中寶物展示館

朝鮮歷史의 現場

宗廟와 德壽宮을 찾아서

I. 들어가는 말

“李氏朝鮮의 정기가 있는 昌德·昌慶宮의 숨결”의 내용과 같으며 그중에서도 세계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宗廟와 역사적 숨결이 담겨있는 德壽宮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李氏朝鮮의 신주를 봉안한 世界文化遺産 — 宗廟

宗廟는 朝鮮王朝의 역대 王과 王妃 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神主를 봉안한 묘이다. 56,500평의 경내의 종묘 正殿을 비롯하여 別廟인 永寧殿과 典祀廳, 齋宮 香官廳 및 功臣堂등의 건물이 있다.

宗廟의 창건은 조선왕조가 한양 천도한 후 太祖 3년(1394)에 착공하고 1395년 완공되어 그해 開城에서 신주를 옮겨 모셨다.

처음에는 胎室 7칸 左右翼室 각 2칸 功臣堂 5칸의 규모였는데 明宗朝에 3칸을 증건하여 10칸이 되었으나 壬辰倭亂으로 소실되어 1608년 정전 11칸이 증건되고 그후 계속 증축되어 현재 19칸의 규모에 이르렀다.

永寧殿은 世宗3年(1421)에 창건되어 처음에는 정전 4칸 東西夾室 각 1칸의 규모였는데 壬辰倭亂때 소실되어 1608년 증건되었으며 그후 계속 증축되어 현재 16실에 이르렀다.

현재 宗廟 정전에는 19실에 49위 永寧殿에는 16실에 33위 正殿 묘정 功臣堂에 83위의 신위가 각각 봉안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正殿에서 매년 五大享을 지냈고 永寧殿에는 재향일을 따로 정하여 매

년 春秋 2회로 차례를 지냈으나 1945년 이래 폐지되었다가 1969년부터 매년 1회 대제를 올리기 시작하여 1971년 이후로는 全州李氏大同宗約院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로 정하여 종묘대제를 올리고 있다. 이조 조선왕조 제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부는 1975년 宗廟祭禮를 重要無形文化財 第56號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Ⅲ. 歷史現場의 숨결 — 德壽宮

德壽宮은 원래 成宗 형인 月山大君(1454~1488)의 집이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왕궁이 모두 불에 타서 1593년부터 行宮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선조 임금의 뒤를 이은 光海君은 1608년에 이곳 행궁에서 즉위한 후 1611년에 이 행궁을 慶運宮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1615년에 昌德宮으로 옮길 때까지 7년 동안 왕궁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270년 동안은 별궁으로 사용되었다가 1897년에 러시아 공사관에 계시던 高宗皇帝께서 이곳으로 환궁하시어 다시 왕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고종황제께서는 1907년에 純宗황제께 왕권을 양위한 후 왕궁이 昌德宮으로 옮겨진 후에도 이곳에서 계속 거처하셨다. 이때부터 고종황제의 장수를 비는 뜻으로 이곳을 德壽宮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 德壽宮의 면적은 18,635평이며 경내에 남아 있는 건물로는 大漢門, 中和殿, 光明門, 昔御堂, 浚明堂, 郎宗堂, 咸寧殿, 德興殿, 石造殿(東館은 宮中遺物展示館, 西館은 國立現代美術館, 德壽宮分館으로 使用)등이 있다.

朝鮮時代品階

(官職 및 宗親)

	品階	大 臣		宗 親	儀 賓	雜 職		士 官 職	
		東 班	西 班			東 班	西 班	東 班	西 班
堂	正一品	大匡輔國 崇祿大夫 輔國崇祿大夫		顯祿大夫 興祿大夫	綏祿大夫 成祿大夫				
	從一品	崇祿大夫 崇政大夫		昭德大夫 綏德大夫	光德大夫 崇德大夫				
	正二品	正憲大夫 資憲大夫		崇憲大夫 承憲大夫	奉憲大夫 通憲大夫				
	從二品	嘉靖大夫 嘉善大夫		中義大夫 正義大夫	資義大夫 順義大夫				
	正三品	通政大夫	折衝將軍	明善大夫	奉順大夫				
堂		通訓大夫	御侮將軍	彰善大夫	正順大夫				
	從三品	中直大夫 中訓大夫	建功將軍 保功將軍	保信大夫 資信大夫	明信大夫 教信大夫				
	正四品	奉正大夫 奉列大夫	振威將軍 昭威將軍	宣徽大夫 廣徽大夫					
	從四品	朝散大夫 朝奉大夫	定略將軍 宣略將軍	奉成大夫 光成大夫					
參	正五品	通德郎 通善郎	果毅校尉 忠毅校尉	通直郎 秉直郎				通議郎	建忠徒尉
	從五品	奉直郎 奉訓郎	顯信校尉 彰善校尉	謹節郎 慎節郎				奉議郎	勵忠徒尉
	正六品	承義郎 承訓郎	敦勇校尉 進勇校尉	執順郎 從順郎		供職郎 勵職郎	奉仕校尉 修仕校尉	宣職郎	建信徒尉
	從六品	宣教郎 宣務郎	勵節校尉 秉節校尉			謹任郎 效任郎	顯功校尉 迪功校尉	奉職郎	勵信徒尉
參	正七品	務功郎	迪順副尉			奉務郎	勝勇副尉	熙功郎	敦義徒尉
	從七品	啓功郎	奮順副尉			承務郎	宣勇副尉	注功郎	守義徒尉
	正八品	通仕郎	承義副尉			勉功郎	猛健副尉	供務郎	奮勇徒尉
	從八品	承仕郎	修義副尉			赴功郎	壯健副尉	直務郎	效勇徒尉
	正九品	從仕郎	效力副尉			服勤郎	致力副尉	啓仕郎	勵力徒尉
	從九品	將仕郎	展力徒尉			展勤郎	謹力副尉	試仕郎	輝力徒尉

參考：東國餘地備考에는 宗親의 從一品 昭德大夫를 宜德大夫로 綏德大夫를 嘉德大夫로 從二品 正義大夫를 昭義大夫로 大臣의 從二品 嘉靖大夫를 嘉義大夫로 표기하고 있음.

朝鮮時代品階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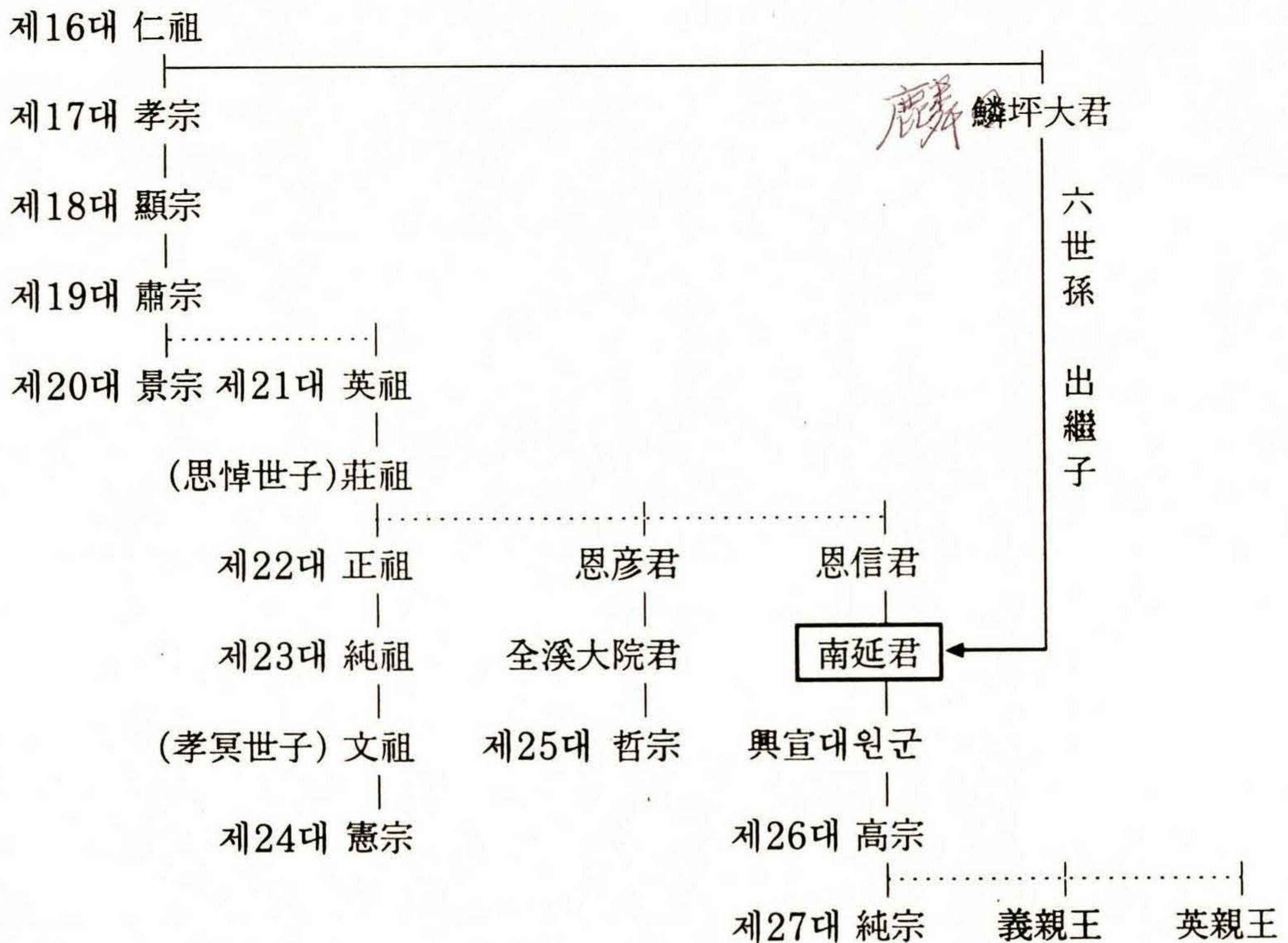
(王室)

	內命婦(1) 王宮	內命婦(2) 世子宮	外命婦(1) 宗親의 妻	外命婦(1) 王室의 女	外命婦(1) 文武官의 妻
無階	嬪			公翁主主	
正一品	嬪		府夫人 (大君의 妻) 郡夫人 (王子郡의 妻)		府夫人 (王妃의 母) 貞敬夫人
從一品	貴人		郡夫人		奉保夫人 (大殿乳母) 貞敬夫人
正二品	昭儀		縣夫人	縣主	貞夫人
從二品	淑儀	良娣	縣夫人	縣主	貞夫人
正三品	昭容		愼夫人		淑夫人
從三品	淑容	良娣	惠人		淑人
正四品	昭嬪		惠人		令人
從四品	淑嬪	承徵	溫人		令人
正五品	(以下係宮入職) 尙尙宮儀		溫人		恭人
從五品	尙尙服食	昭訓	順人		恭人
正六品	尙尙寢功		順人		宜人
從六品	尙尙正記	(以下係宮入職) 守守閨則			宜人
正七品	典典嬪衣膳				安人
從七品	典典設製言	掌掌饌正			安人
正八品	典典贊飾藥				端人
從八品	典典燈彩正	掌掌書縫			端人
正九品	秦秦宮商角				孺人
從九品	秦秦變徵羽徵宮 秦秦變	掌掌臟醫食			孺人

- 덕산면 상가리 남연군묘 묘비명을 중심으로 -

남연군의 묘가 덕산면 상가리에 위치해 있다.

安東金氏들이 자신들의 政權安保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王室의 宗親들을 大逆罪人으로 몰아 죽여버렸기에 혈육으로 마땅히 王으로 세울만한 사람이 없어 哲宗과는 7촌 叔姪 관계인 高宗을 세웠다.



有明朝鮮國 — 조선국은 명나라 안에 속해 있는 작은 소국이다.

朝鮮朝에서는 儒敎思想, 事大主義思想, 中華思想에 젖어 모든 根源을 중국에서 찾으려 하였다.

中華思想이라 함은 孔子, 孟子의 사상으로 중국 皇帝가 앉아있는 玉座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상이다.

하지만 본시 우주의 중심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것이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東西南北의 방위가 설정되는 것이니 그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현 위치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서울사람들이 대전이 남쪽에 있다 하여 부산사람들도 대전이 남쪽에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에는 有明朝鮮國이라 稱하는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움으로 알았으니 조선조의 그릇된 사대사상으로 인하여 자주성을 상실한 치욕스런 말이다.

이같이 조선조의 잘못된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자주성을 상실하고 타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순신장군의 묘비, 임경업장군의 묘비를 비롯한 조선시대 건립된 관직이 높았던 사람들 묘비에는 한결같이 有明朝鮮國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顯祿大夫 — 공무원의 계급

조선시대 관료(공무원)들에게 내렸던 품계표를 보면 5가지로 구분된다.

大臣階 — 실제로 국정을 수행하는 대신들에게 내리는 품계

宗親階 — 李王家의 종친들에게 내리는 품계

儀賓階 — 왕실의 사돈들에게 내리는 품계

士官階 — 지방 호족들에게 내리는 품계

雜職階 — 역관(통역), 의관(의원), 천문관 등 기타 잡직에게 내리는 품계

大臣品階로는 正一品에 大匡輔國崇祿大夫와 輔國崇祿大夫가 있다.

議政府의 領議政에 오른 者에게만 大匡輔國崇祿大夫를 내리고 左, 右議政에 오른 者에게는 輔國崇祿大夫를 내린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선생이 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함은 중인 출신으로서 정승반열에 까지 올랐으니 우리 역사상 出身性分을 타파한 初有의 출세였던 셈이다.

宗親品階로는 正一品에 顯祿大夫와 興祿大夫가 있다.

南延君은 왕실의 종치녕었던 고로 종친품계인 顯祿大夫를 내렸다.

** 高麗朝나 朝鮮朝에서 官職名을 쓸 때는 品, 司, 職 순으로 썼었다.

예를 들어 朝鮮朝에서 領議政을 지낸 조상의 지방을 닥는다 할때 正一品의 品階인 大匡輔國崇祿大夫, 소속부서 司인 議政府, 職責인 領議政 순으로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府事府君神位 라 써야 하는 것이다.

고로 南延君의 예는 正一品인 顯祿大夫 소속부서 司인 五衛都摠府 職責인 都摠官 으로 顯祿大夫 五衛都摠府 都摠官이라 한다.

또한 高麗朝와 朝鮮朝에서 品階를 볼 때 각기의 官職에는 一定하게 品質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 官職 자체의 규정된 品質보다 높은 品을 가진 사람이 任用되는 경우를 行 낮은 品을 가진 사람이 任用되는 경우를 守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長官級에 해당되는 朝鮮朝 각 曹의 判書들은 正二品職이다. 그러나 만약에 從一品 崇政大夫의 品階를 가진 官員이 吏曹判書에 임용된다고 할 때는 崇政大夫 行 吏曹判書라 하고 從二品 嘉義大夫 品階를 가진 사람이 임용되는 남연군의 품계 顯祿大夫는 正一品이고 직책인 五衛都摠府都摠官은 正二品職이기에 공식 명칭은 顯祿大夫 行 五衛都摠府都摠官이라 하여야 한다.

南延君 —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로서 貴族으로 구분한 名稱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는 귀족 구분을 공, 候, 伯, 子, 男 다섯 계급으로 區分하여 封하였던 것을 고려 중기에 들어서 忠宣王이 官制를 고쳐 府院君, 大君, 院君, 諸君, 院尹, 正尹으로 변경하여 구분하였던 기록이 있다.

현재 유럽에서 公, 候, 伯, 子, 男 다섯 분류로 귀족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은 이같이 동양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배워간 것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목은 이색선생을 韓山伯에 封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 초기에 잠시 약 4~5년간 사용하다가 다시 府院君, 大君, 院君, 諸君, 院尹, 正尹으로 복귀하였던 것 같다.

굳이 예를 들자면 상당부원군 한명회, 고령부원군 신숙주 등은 후작에 해당하는 府院君이고 南延君은 공작에 해당하는 君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예로 朝鮮을 합병한 日人들이 매국의 功으로 이완용에게 후작 작위를 주었으며 朝鮮皇室의 英親王과 儀親王에게는 공작 작위를 주었다.

그들의 품계는 아래와 같다.

府院君, 大君, 院君〔公, 候〕 正一品, 諸君〔伯〕 從一品, 院尹〔子〕 正二品, 正尹〔男〕 正三品

係

兼 — 그리고, (또한)

五衛都摠府都摠官 — 조선조 무반의 최고 벼슬로서 지금의 합참의장에 해당

조선조에 군사 편제단위로서 용양위, 호분위, 충찬위, 충좌위, 의흥위 등 5개의 衛가 있었으니 이른바 현재의 군단에 해당하며 각 衛마다 좌, 우영이 있으니 좌, 우영은 요즈음의 사단에 해당한다.

五衛를 총괄하는 총사령부의 사령관인 五衛都摠府都摠官의 품계는 正二品으로서 조선조 무반의 최고 관직이기는 하나 병권은 장악하지 못한다.

또한 한사람도 아니고 정원이 10명이나 된다.

실질적으로 병권은 병조판서가 장악을 하고 그들 五衛都摠府都摠官들에게는 국방에 관한 자문만을 요하는 요즈음 말로 국방자문위원들로서 한직인 명예직이다.

世祖大王때 첩의 자식인 유자광의 최종 관직이 五衛都摠府都摠官이었다.

** 이 같은 명예직을 문반으로 내린다면 中樞府로 내리는데 正一品 요직을 지낸 者에게는 領中樞府事를 從一品 요직을 지낸 者에게는 判中樞府事를 從二品 요직을 지낸 者에게는 同知中樞府事를 正三品 요직을 지낸 者에게는 僉知中樞府事를 내린다. 그들에게는 할 일이 없다. 국정에 관한 자문만을 요할 뿐이다. 그들은 할 일 없이 이곳 저곳의 관아를 돌아다니며 한마디씩 거들고, 요직의 관료들 역시 괜시리 자문을 요하는 척 하며 원로로서 대접을 하였다.

하기애 요즈음도 시골에서 뒷짐을 지고 호박이나 따러 다니는 할 일 없는 노인들끼리 모여서 김첨지, 박첨지 하며 서로가 이르는 말은 僉知中樞府事의 준말로써 영예스런 말이다.

贈諡 — 사후에 내리는 시호

조선조에서 관직을 내릴 때는 實職, 贈職, 榮職 세가지로 구분된다.

實職 - 국가에서 녹봉을 지급하며 출근하여 실무에 임하는 직.

榮職 - 녹봉을 지급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고 실무에도 임하지 않는 직으로 당사자에게 벼슬길에 올랐다는 명예를 주기 위하여 교지만을 내리는 직.

贈職 - 죽은자에게 관직을 주거나 진급을 시키는 직.

예1 : 조선조에서는 당사자가 출세하여 正二品職에 올랐다면 그 당사자의 아버지에게는 당사

자와 같은 正二品職을 追贈하고 당사자의 할아버지에게는 一品이 낮은 從二品職을 追贈 하였으며 당사자의 증조할아버지에게는 二品이 낮은 正三品職을 追贈하였다.

예2 : 대위 강재구가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려 수류탄에 몸을 날려 폭사하자 사후 소령으로 진급시켰던 것과 동의대사태 당시 희생 경찰관에게 2계급씩 특진시켰던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贈諡라 함은 죽어서 내리는 시호를 말한다.

시호는 당사자 생전에 내리기도 하며 사후에 내리기도 하는데 贈諡라 함은 죽은 후에 내리는 시호를 말한다.

忠 定 — 남연군의 시호

武班(군인)에게 내리는 시호는 충자가 들어가야 가장 명예로운 시호가 된다.

하기에 이순신장군의 시호는 충무공, 임경업장군의 시호는 충민공으로 내렸다.

현재도 훈장을 내릴 때 군인에게는 忠武武功勳章이나 花郎武攻勳章을 내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연군의 관직 五衛都摠府都摠官^{KS}은 무반직 이기에 남연군의 시호 역시 忠定公으로 내렸다.

完山李氏 — 전주이씨를 이르는 말

통일신라 경덕왕이 전국 지명을 일제 정리할 때 현재의 전주를 完山州로 개명을 했으며 후백제의 견훤이 全州로 개명을 했다.

諱 — 이름이라는 뜻이다.

사람이 살아 생전에는 이름을 명이라 하고 높임말로 윗사람에게는 함자라 하며 죽은 者에게는 諱라 한다.

球 救 — 남연군의 이름을 말한다.

高宗皇帝께서 후사로 3男을 두셨으니 장남이신 純宗皇帝와 차남이신 義親王과 막내아드님이신 마지막 皇太子 英親王이시다.

3형제분이 배가 각 다르시니 純宗皇帝께서는 明星皇后 閔氏 소생이시고 義親王은 梁貴人 소생이시며 英親王은 嚴貴妃 소생이시다.

純宗皇帝께서 후사가 없으시니 막내동생이신 諱 垠 公을 皇太子로 삼으시고 英親王으로 封하여 閔氏 姓을 가진 규수와 約婚을 맺으셨으나 日本에 불모 되시어 일본여인이 방자여사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함자를 玖라 하시는 분이 계시니 이분께서 남연군의 高孫子가 되시는 분이시다.

물론 漢字는 틀리게 쓰나 南延君과 이 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가요 비둘기집을 노래한 밤무대가수 이석 씨는 義親王의 아드임이시다.

之 墓 — 당사자의 묘소를 뜻한 말이다.

郡夫人 — 남연군 부인의 첩지

郡夫人과 貞敬夫人의 차이점은 남편의 품계가 宗親의 품계를 가졌는가, 大臣의 품계를 가졌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南延君은 종친품계인 顯祿大夫를 받았기에 그 부인은 郡夫人이라 하며 南延君의 첫째 아들인 興寧君 李昌應과 셋째 아들인 興仁君 李僎應은 왕실의 종친이면서도 대신품계인 大匡輔國崇祿大夫를 받았기에 그 부인을 貞敬夫人이라 한다.

나라님이 벼슬을 내리는 사령장을 敕旨라 하고 그 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내리는 것을 帖旨라 한다.

郡夫人은 남편의 품계가 종친품계 正一品과 從一品의 품계를 가진 왕실 종친들의 부인들에게 내리는 帖旨이며 貞敬夫人은 남편의 품계가 대신품계 正一品과 從一品의 품계를 가진 大臣들의 부인들에게 내리는 帖旨이다.

혹자들은 郡夫人과 貞敬夫人중 어느 것이 더 높으나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높은지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옛 풍습에 대신들이 탄 교자가 덩(췌- 물렛거라, 영상대감 행차시다. 하고 외치는 소리)을 치며 거리를 활보 할 때는 왕실의 종친들이 탄 교자는 덩을 멈추고 잠시 골목길로 피해주는 것이 道理요 또한 法道로 알았다.

대신들이 權力을 휘어잡고 있었던 바 權力, 經濟力을 비롯한 다사 모든 면에서 한직이며 명예직에 머물러 있는 宗親府의 사람들을 압도하였을 것이다.

또한 나라에서 내리는 녹봉으로만 생활을 하여야 하는 왕실의 종친 한 사람쯤은 마음만 먹는다면 大逆罪人으로 몰아 죽일 수도 또한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기에 宗親府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를 신중히 하여야 하고 대신들의 눈 밖으로 나지 않게 비위를 맞춰야 했을 것이다.

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郡夫人들은 貞敬夫人들을 한 수 위로 대접하였을 것이며, 貞敬夫人들 또한 郡夫人들을 왕실 종친의 어른으로서의 예의를 대접하였을 것이다.

** 南延君의 碑文을 보면 南延君은 임금군자를 쓰고있는 반면 郡夫人은 고을군자로 달리 새겨 놓았다.

이유인즉, 朝鮮朝의 투철한 儒敎思想觀으로 볼 때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여자들에게 임금군자는 쓸 수가 없다 하여 郡夫人은 고을군자로 쓰고 있다.

麗興閔氏 — 남연군의 처가 본관

남연군의 처 군부인 麗興閔氏, 흥선대원군의 처 麗興府大夫人, 고종황제 비 明星皇后, 순종황제 비 純明孝皇后 4대 모두가 麗興閔氏로서 남연군의 처가 쪽으로 인척관계다.

** 순종황제 비 純明孝皇后 閔氏께서 일찍 돌아가시어 純貞孝皇后 尹氏를 들이시니 그 분 역시 麗興閔氏와 인척관계가 되시는 분이신데 1976년에 운명하셨다.

英親王과 약혼을 맺으셨던 민씨 규수 역시도 麗興閔氏로서 남연군의 처가와 인척관계가 되시는 분으로서 수절을 하시며 홀로 한 많은 여생을 보내시다가 1972년에 운명하셨다.

附 左 — 남편이 좌측으로 묻혀 있다는 뜻.

남연군과 부인의 합장묘라는 의미

예산문화원 새천년 기획사업

“예산군문화유적총람” CD-ROM제작완료

— 예산문화원의 지역축제,

「추사문화제」와 「임존성백제부흥군축제」지상소개 —

추 사 문 화 제

1. 행사명 : 추사문화제

2. 행사동기 및 유래 :

추사김정희선생은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추사체를 창안한 대서예가 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생의 서예정신을 후학인 우리가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뜨거운 열망을 한데모아 이를 발현시키고자 선생께서 낳고 자라신 예산에서 1990년부터 전국회호대회를 열게 되었고 거기에 다가 예산문화원 문화행사중에서 유관행사를 1997년부터 함께 열어 2000년도에는 제4회 추사문화제를 10월 7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다.

3. 행사시기 : 10월 10일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을 포함하여 3일간 개최

4. 장 소 : 예산문화원, 추사고택

5. 행사내용(프로그램) :

- 추사김정희선생추모전국회호대회
- 추사서화 영인작품 전시판매
- 분재전시회
- 예산군어린이미술실기대회
- 예산군학생서예대전
- 예산군학생글짓기대회
- 예산군학생품물겨루기대회

6. 주최 및 주관단체

- 주최 : 예산문화원
- 주관 : 추사문화제 집행위원회(예산문화원 문화단체, 후원단체)

7. 문 의 처 :

- 예산문화원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3(전화 041-335-2441 · 333-2441)
(전송 041-334-4330)

임존성 백제부흥군 축제

1. 행사명 : 임존성 백제부흥군 축제

2. 행사동기 및 유래 :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할 때 부여 사비성이 함락당하고 의자왕이 항복했으나 대흥임존성에 부흥군이 운집하여 최후의 항전을 했지만 끝내 백제 복국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임존성은 함락되었다.

부흥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때의 의열정신을 계승하고자 1992년부터 백제부흥군 위령제전을 거행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는 이를 백젼누화정신으로 승화하려는 뜻으로 새로운 문화체험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임존성백제부흥군축제로 개최하였다.

3. 행사시기 : 11월상순

4. 장소 : 대흥임존성의 남문지위우물터, 장군바위(정상) 및 성곽일원

5. 행사내용(프로그램) :

- 위령제
- 민족음악원 풍물단의 터벌림 및 길놀이
- 천도제(진혼무 - 비나리기원 - 사물놀이 - 송신)

6. 주최 : 예산문화원

7. 문의처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33 (전화 041-335-2441 · 333-2441)
(전송 041-334-4330)

예산(禮山)에 대한 토막지식

예산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인, 지금으로부터 약 이천이삼백년전 쯤의 유물이 출토되어 왔는데 그 시기는 우리나라의 삼한시대로 추정되는 시기로서 그 당시 오늘날의 경기, 충청, 전라도에 해당하는 마한은 50여국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10만여호를 이루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이들 크고 작은 나라들의 대표격으로 목지국(目支國)의 이름이 나오는데 넓은 평야와 서해안에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대량의 청동기 유물의 출토 등으로 미루어 이곳 예산지역에다 목지국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목지국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나라들은 그후 다른 마한 소국들과 마찬가지로 백제에 병합되는 결과를 맞았을 것이고 그 무렵 이곳 예산지역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는 관계문헌이 부족하여 전혀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지만 다만 이 지역도 시기만 불확실 할 뿐 백제중엽 근초고왕대에 백제권에 흡수되었으리라는 견해에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이곳 예산이라는 지명은 고려태조 2년에 처음 나오는데 백제시대에는 오산현, 통일신라시대에는 고산현으로 불리다가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이 태상 홍유와 애선을 보내서 덕과 애절이 바른 유민 500호를 안주시키고 이때부터 예절이 바른 유민을 뜻하는 예(禮)자와 고산성의 산자를 따서 예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예산은 예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추사김정희선생, 그리고 매헌 윤봉길의사와 같은 당대의 명현의사(名賢義士)들을 다수 배출한 이른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문화단신

제11회 추산선생추모 전국취호대회 수상작품전 개최

예산전시회

기간 : 2000. 11. 14~16

장소 : 예산군문예회관전시실

개최 : 2000. 11. 14(火) 오후2시

서울전시

기간 : 2000. 11. 23~27

장소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전시실 3층7실

개최 : 2000. 11. 23(木)오후2시



제3회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회원전

2000. 12. 19~22

예산군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

문화가족 유적지순례

2000. 11. 25(토)

서울 종묘와 덕수궁 탐방

예산문화원 문화가족 참여

